



성격이 뚜렷한 21년초 글로벌 증시

1. 선진국에서는 유럽, 신흥국에서는 칠레

- 21년 첫 주 글로벌 증시는 +2.7% 상승. 섹터별로는 에너지(+8.1%), 소재(+6.5%) 등 원자재 관련 섹터가 강세
- 원자재 가격은 연초대비 +3.3%(CRB 지수 기준) 상승 중. 특히 철광석의 경우 +6.9%, 구리는 +4.7% 급등
- 관련 국가들의 증시 수익률도 아웃퍼폼 중. 최대 구리 생산국인 칠레 증시의 연초대비 수익률은 +9.2%

2. 여전히 원자재가 필요한 중국

- LatAm 지역은 중국의 수입 수요 회복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
- 중국의 수입 지표에서 돋보이는 것은 원자재 부문. 11월 철광석 수입은 전년대비 +43.4%, 철강제품은 +39.4%, 구리는 +31.1%, 알루미늄은 +72.1% 증가
-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행되면서 중국의 국영/민간 고정자산투자도 동반 회복세

3. 중국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선진국

- 그리스 최근 확인된 12월 제조업 PMI에서는 유로존 지표의 회복세가 뚜렷. 연말 부분적 락다운 조치를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
- 독일의 부문별 제조업 수주를 살펴보면 '자동차'와 '1차 금속'의 수주 금액이 크게 증가했던 것을 확인 가능. 중국의 독일산 제품 수입은 10월 전년대비 +24.0%, 11월 +13.1% 증가
- EU와 중국이 약 7년 만에 투자협정에 합의하는 등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한 내용



주식시장 투자전략

1. 선진국에서는 유럽, 신흥국에서는 칠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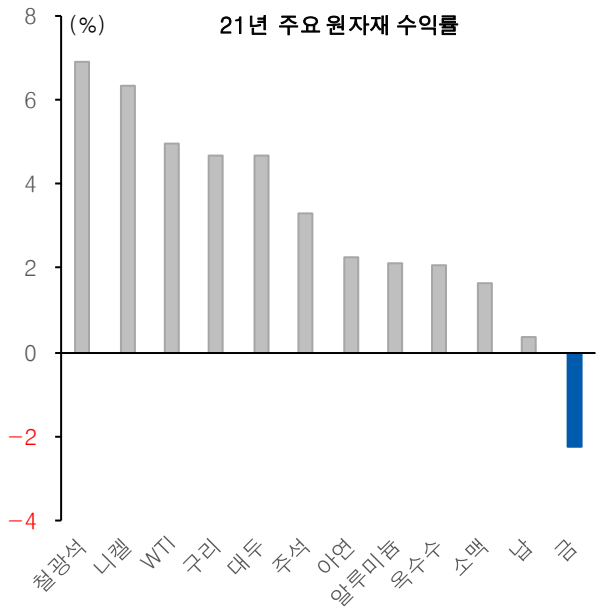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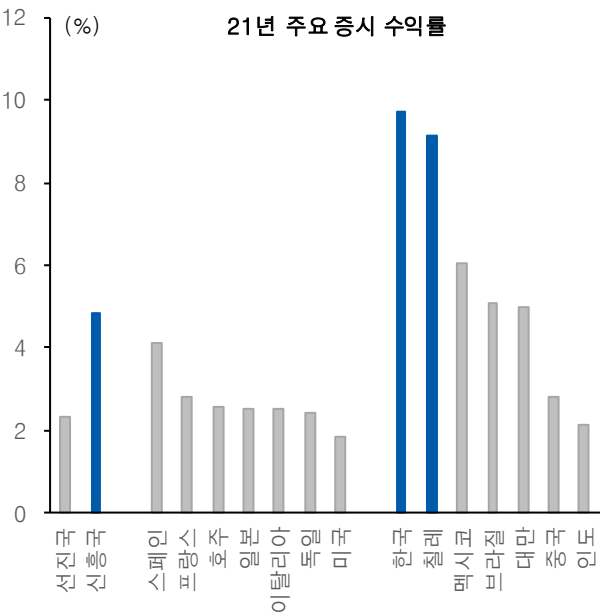
21년 첫 주 글로벌 증시는 +2.7% 상승(MSCI ACWI)했다. MSCI 전세계 지수를 구성하는 49개국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고, 이중 14개국은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다.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나누어보면 신흥국의 강세가 돋보였다(선진국 +2.4%, 신흥국 +4.8%). 국가별로는 한국의 KOSPI 지수가 +9.7% 상승해 전세계 49개국 중 가장 높은 수익률 기록했는데, 현대차의 애플카 공동개발, 삼성전자의 반사이익(TSMC 생산차질) 관련 소식이 촉매로 작용했다.

글로벌 섹터별로는 에너지(+8.1%), 소재(+6.5%)와 같은 원자재 관련 섹터가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이외 경기에 민감한 금융 섹터(+4.0)도 양호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원자재 가격은 연초대비 +3.3%(CRB 지수 기준) 수준의 강세 기초를 이어가는 중이다. 특히 철광석의 경우 +6.9%, 구리는 +4.7% 급등하는 양상인데, 금속 가격 호조로 관련 국가들의 증시 수익률도 아웃퍼폼 중이다. 특히 최대 구리 생산국이자 주요 철광석 생산국인 칠레 증시는 연초대비 +9.2%에 달하는 수익률(전세계 2위)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본 글로벌 에너지, 소재 섹터의 강세와 같은 맥락의 흐름이다.

[차트1] 신흥국 증시의 모멘텀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21년 증시. 선진국에서는 유럽 증시가 아웃퍼폼 중 [차트2] 강세 기초를 이어가고 있는 원자재.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유일하게 연초대비 하락세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2. 여전히 원자재가 필요한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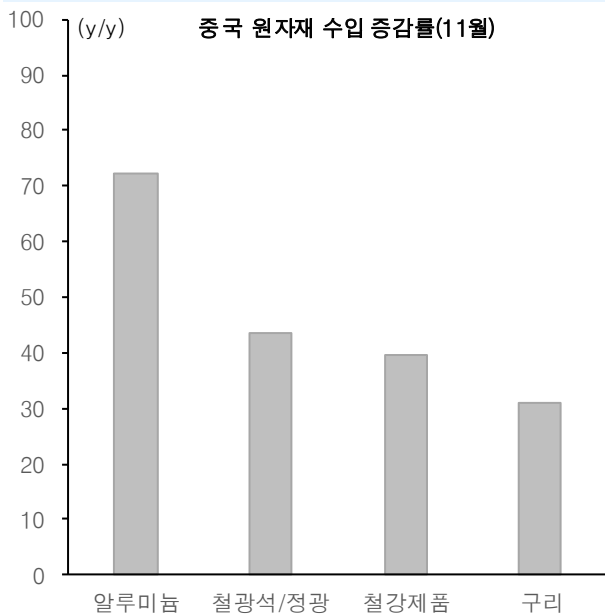
칠레, 브라질 등이 포함된 LatAm 지역은 중국의 수입 수요 회복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1분기 '투자 선호'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지표들 통해 변함없이 확인되고 있다.

중국의 최근 수입 지표에서 돋보인 것은 원자재 부문인데, 11월 기준 철광석은 전년대비 +43.4%, 철강제품은 +39.4%, 구리는 +31.1%, 알루미늄은 +72.1% 증가했다. 항목별 컨센서스는 집계되지 않지만, 15일 발표될 중국의 12월 총 수입금액은 전월 +4.5%에서 +5.0%로 모멘텀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행되면서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지표는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에서 동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11월 중국 정부가 승인한 인프라 투자 금액이 17년 이후 최고치(21.3억 위안. 매년 10~11월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IMF 역시 중국의 수요 회복을 견인할 투자의 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의 투자증감률은 19년 무역분쟁과 20년 코로나19로 인해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왔으나, 21년에는 +7.1%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차트3] 중국의 원자재 수입은 40% 내외의 증감률 기록 중. 금요일 확인될 12월 지표에서 더욱 강화된 수치 확인 전망



[차트4] 고정자산투자 회복은 민간과 국유기업에서 동시 확인. 인프라투자 승인 금액을 고려하면 회복세 지속될 전망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식시장 투자전략

3. 중국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선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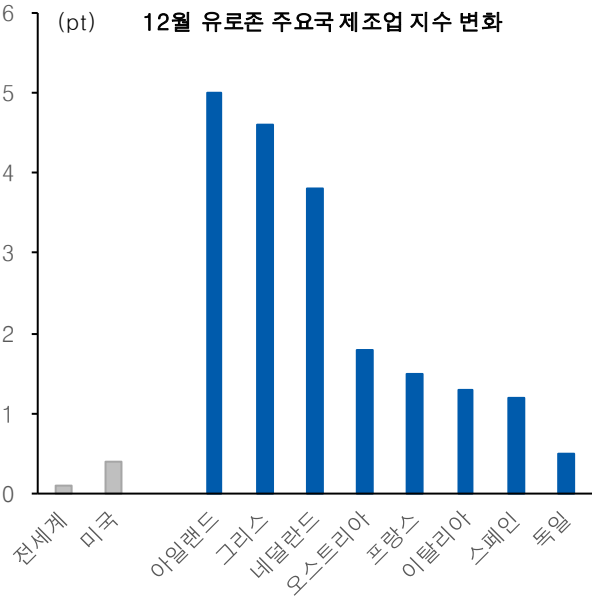
중국의 수요 회복은 신흥국의 낙수효과와 결부짓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혜택을 얻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최근 확인된 글로벌 제조업 PMI 에서는 미국의 둔화(전월대비 +0.4pt)와 유럽의 회복(+1.4pt)이 특징적으로 확인됐다. 국가별로는 독일과 프랑스의 회복세가 뚜렷했는데 독일의 제조업 PMI 는 전월 57.8pt 에서 58.3pt 로 추가 상승했고, 프랑스는 49.6pt 에서 51.1pt 로 확장국면에 재진입했다. 연말 부분적 락다운 조치를 재개(코로나19 재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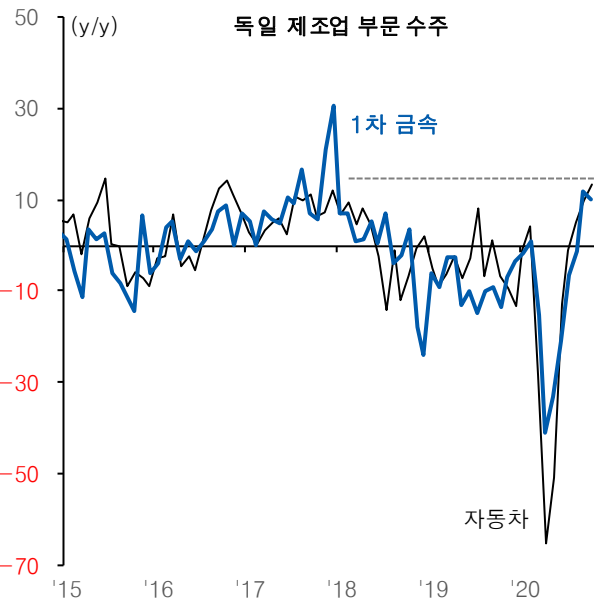
독일의 부문별 제조업 수주를 살펴보면 '자동차'와 '1차 금속'의 수주 금액이 크게 증가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10월 자동차 수주는 전년대비 +13.3%, 1차 금속의 경우 +10.0% 증가했는데, 이는 각각 2018년 초 이후 최고 수준에 해당한다.

독일의 이러한 수주 호황은 중국의 수요 회복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독일산 제품 수입은 10월 전년대비 +24.0%, 11월 +13.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역시 2018년 초 이후 최고치다. 중국의 투자사이클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작년 말 EU 와 중국이 약 7년 만에 투자협정에 합의하는 등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투자판단에 함께 참고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차트5] 12월 부분적 락다운 조치를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산업활동을 이어간 유로존의 기업들



[차트6] 독일의 제조업 부문 수주는 18년 초 이후 최고 수준을 회복. 중국향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